

현대·기아차 부진 털고 '으랏차차'

신차 판매 호조·원화 약세 효과...광주공장 생산 2751대 증가 기아차 상반기 영업이익 1조 1277억·현대차 2조 626억원

기아자동차가 쏘울·텔루라이드 등 신차 판매 호조와 환율 효과 덕에 상반기 활짝 웃었다. 영업이익 1조1277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6582억원)보다 무려 71.3% 좋아졌다. 광주공장도 지난해보다 2751대를 더 생산하며 실적 호조에 힘을 보탤다.

기아자동차는 23일 서울 양재동 기아자동차 본사에서 기업설명회(IR)를 개최하고 2019년 상반기 경영실적을 발표했다.

기아차의 올해 상반기 경영실적은 ▲매출액 26조9510억원(전년 동기비 1.2% ↑) ▲영업이익 1조1277억원(71.3% ↑) ▲경상이익 1조6004억원(67.0% ↑) ▲당기순이익 1조1545억원(61.1% ↑) 등으로 집계됐다.

판매는 크게 줄었다. 국내 판매는 24만2870대로 전년 대비

9.3% 감소했다. 상반기 신차 부재와 모델 노후화로 주요 RV 모델의 판매가 감소했고, 불륜 차종인 K5 역시 올해 신차 출시를 앞두고 있어 판매가 줄었다. 이 때문에 현대차 주요 차종에 국내 판매 순위 1~4위(1위 그랜저 5만5867대, 2위 포터 5만4491, 3위 쏘나타 4만8149, 4위 싼타페 4만5280)를 모두 내줬다.

반면, 해외시장에서는 대체로 선방했다. 중국 판매량(14만4472대)이 16.4% 크게 줄었지만, 미국 시장에서 전년 대비 2.3% 증가한 38만3192대를 팔아 이를 만회했다. 대형 SUV 텔루라이드와 소형 CUV(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량) 쏘울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다.

기아차 광주공장에서는 상반기 총 22만9405대를 생산, 지난해 같은 기간(22만

6654대)보다 생산량이 1.2% 증가했다. 이 중 내수가 5만5237대, 수출이 17만4168대로, 수출이 3배 이상 많았다.

차종별로는 1월 출시한 쏘울 부스터(쏘울 부스터 EV 포함) 8만3544대(내수 4628대, 수출 7만8916대), 스포티지 9만5991대(1만7536대, 7만8455대), 봉고트럭 4만7820대(3만1443대, 1만6377대), 군수-버스1688대(1509대, 179대), 셀토스 362대(121대, 241대) 등이다.

환율 효과 덕도 톡톡히 봤다. 지난해 상반기 대비 우호적인 원·달러 환율 덕분에다. 2분기 평균 원·달러 환율(1165.9원)은 지난해 2분기(1078.6원) 대비 8.1% 올랐다. 주요 부품을 국내에서 수출하는 현대·기아차 사업구조상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수출품 가격이 하락하는 효과가 있다.

기아차는 하반기 실적이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줄줄이 신차 출격이 대기하고 있어서다.

6월24일 준대형세단 K7 프리미어를 출시한 데 이어, 지난 18일 광주공장에서 소형 SUV 셀토스를 양산, 국내 시장에 투입했다. 또 3분기 중 대형 SUV 모하비 마스터피스 부분변경 모델을 출시하고, 중형세단 K5 완전변경 모델도 연내 선보일 계획이다. 미국 시장에서 인기인 텔루라이드 판매 확대도 추진한다.

현대자동차는 7분기 만에 영업이익 1조원을 회복했다. 환율과 팔리세이드·쏘나타 등 신차 효과에 힘입었다.

현대차 2분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1% 늘어난 26조9664억원을 기록했다. 순이익 9993억원, 영업이익 1조2377억원으로 각각 23.3%, 30.2% 늘었다.

현대차의 올해 상반기 경영실적은 ▲판매 212만 6293대 ▲매출액 50조 9534억원 ▲영업이익 2조 626억원으로 집계됐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101.45 (+8.11)
- ▲ 금리(국고채 3년) 1.34 (+0.01)
- ▲ 코스닥 668.65 (-6.13)
- ▲ 환율(USD) 1178.90 (+0.60)



박석현 광주국세청장 '현장 경영'

전주 부가세 신고현장 방문

박석현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3일 오전, 취임 후 첫 행보로 전주세무서 부가치세 신고현장을 방문했다.

박 청장은 이날 2019년 1기 부가치세 확정 신고기간을 맞아 전주세무서에서 신고를 위해 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들의 애로사항 등을 듣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박 청장은 직원들에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세행정을 펼쳐 줄 것을 강조하며, 내방 납세자가 불편 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당부했다.

특히 경기불황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납세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박 청장은 "일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직원들과 깊이 있게 소통하겠다"며 "여러 사람이 마음을 모아 함께하면 못할 일이 없다"는 신념으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금지와 자부심이 넘치는 당당한 광주지방국세청을 만들어 가자"고 밝혔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송중욱(오른쪽) 광주은행장과 문인 광주 북구청장이 아동들에게 전달할 도시락과 선물 등을 살펴보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 북구 결식아동 도시락 후원

방학기간 40명 대상 영양 도시락 전달식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은 23일 광주 북구청에서 여름방학기간 동안 결식이 우려되는 북구 지역 아동 40명에게 영양 도시락을 후원하는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송중욱 광주은행장

과 문인 북구청장이 참석했으며, 아동 2명을 초대해 수제 도시락과 영양제, 학용품, 인형 등을 선물하며 격려했다.

송중욱 은행장은 "앞으로도 광주은행은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자 지역 각계각층에 필요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에어서울' 승무원에 도전하세요 신입공채 31일까지 접수



아시아나항공 자회사인 에어서울은 2019년 하반기 신입 캐빈승무원 약 50명을 공개 채용한다.

서류전형과 1·2차 면접, 체력검사 등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며, 9월 중 입사하게 된다.

지원 자격은 학력 등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국내 정기 영여시점 성적을 소지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지원이 가능하다.

모집 기간은 오는 31일 오후 5시까지이며, 에어서울 채용 사이트(<http://recruit.flyairseoul.com/>)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49층 첨단 롯데슈퍼주상복합 교통심의 내달 가닥 금호타이어 노사 단체교섭 합의

49층 규모 광주 첨단지구 롯데슈퍼주상복합에 대한 교통심의가 이르면 다음 달 중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지난 달 28일 '쌍암동 롯데슈퍼주상복합' 신축에 대한 소위원회를 열고 이를 '조건부 의결'했다. 심의위는 사업자인 롯데자산개발주에 교통난 유발 요인 해결 등 6가지 보완사항을 이행할 것을 권고하고 사실상 의결 결정을 내렸다. 롯데 측이 보완 보고서를 제출하면 열흘 안에 4번째 심의가 열리고 교통심의는 마무리된다. 롯데 측은 인근 쌍암공원에 160대를 수

용할 수 있는 3층 규모 주차장을 건립한 뒤 기부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자산개발은 지난해 12월 '쌍암동 롯데슈퍼주상복합' 개발을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광산구에 신청했다. 현 롯데슈퍼 점단점 부지(쌍암동 654-2번지 일원)에 지하 6층, 지상 49층 연면적 9886㎡여 m 규모로 판매시설·영화관 등을 갖춘 주상복합건물을 세우겠다는 계획이다.

광산구는 지난 22일 '쌍암동 롯데슈퍼주상복합' 입점이 골목상권에 미치는 영향 연구 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금호타이어 노사가 '2018년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로써 금호타이어는 2분기 흑자 전환과 노사 협력을 기반으로 경영 정상화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23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22일 속개된 제20차 본교섭에서 '2018년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이는 현재 위기상황을 공감하고 경영정상화 달성과 실적 개선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잠정합의안은 오는 26-27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잠정합의안은 ▲설비 투자 및 인력 운영 추진 ▲광주공장 이전 관련 노사 공동 태스크포스팀 구성 ▲퇴직연금 중도 인출 한도 상향 ▲상형수당 지급 등이다.

단체협약은 우선채용 조항을 삭제하고, 내년부터 만60세 반기말로 정년을 조정하는 등 일부 조항을 개정했다.

앞서 금호타이어 노사는 지난 1월29일 단체교섭 잠정합의를 이뤘으나, 2월13일 찬반투표에서 부결됐다. 이후 5월17일 새로 선출된 노조 집행부와 교섭을 재개해 한 달 여만에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역
엔씨백화점
광주역점
오리거리
아로마라이프
성요한병원
유동서거리

Aroma Life
아로마라이프
www.aroma-life.co.kr

FACE 메이크업만 하는 시대는 끝!
이제는 BODY 메이크 UP!

☆☆
흐트러져 있는 살들을 제자리로 정돈 시켜 완벽한 몸매로!

가능성 보정 속옷 12년 장수기업
기능성 속옷의 명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
부위별로 특별하게!
생리적인 불편을 해소

편안한 착용감
탄성GOOD! 흡발습GOOD!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단면유기형 사용

실크프로테인아미노산기공
원적외선 기공

대리점·총판문의 **1588-2219**
본사 광주광역시 북구 경일로 235 V&G빌딩 서울사옥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28길 5 축복빌딩(도곡동 518-9)